

#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ndency of Architecture in Recharad Meier

정혜영\* / Chung, Hye-Young

### Abstract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 tendency of architectural expressions is very various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is searched about how to express the works of Richard Meier, the background of his growth, his architectural thoughts and etc. Especially the meanings of 'white architecture' have contained, which was presented on the relationships of nature, light, purity and completeness.

Lucid and complex, refined yet robust, rational and poetic, Richard Meier's architecture has a timeless quality. For over three decades, he has steered an unwavering course through the shoals and cross currents of architectural fashion, creating a secession of serene white houses, museums, public and commercial buildings.

From Getty Center, his architectural genius came into the world again. With his architectures, this study tries to read the streams of direction on Richard Meier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키워드 : 백색건축, 리차드 마이어, 현대 건축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 건축가들 중 모던 건축가로서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는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찰스 파스미(Charles Gwathmey), 존헤죽(John Hejduk)과 함께 1960년대 'New York'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sup>1)</sup> 그의 작업은 면과 선의 반복을 통한 절제된 디자인 요소와 표현, 자연 환경과 친화하는 색상의 선택, 솔리드(solid)와 보이드(void), 빛과 그림자의 연출을 통한 표현요소들을 접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내포된 미적 체험과, 그가 추구하는 백색 건축의 의미와 함께 현대 건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리차드 마이어의 낭만적 모더니스트로 불리기까지 그의 건축교육의 배경과 그의 건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축가와 그의 삶을 본 연구를 통해 집어보고, 그의 작업에서 백색의 의미와 모던 건축가로서의 위치와 그의 건축이 나타내지는 특징적 요소들을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접해 보면서, 그의 작품 경향이 현대 건축에서 시

사하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활동과 특성 분석

### 2.1.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사고와 활동

그의 건축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건축교육의 배경 등을 살펴보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건축가들과 그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34년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서 태어나 코넬대학에서 건축교육을 받았고, 1963년에 뉴욕시에 사무실을 개설했으며,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에도 그의 사무소를 개설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초기 경력으로는 1959년에 Davis, Brody & Wisniewski 사무소에서 1년간 근무한 후 1960년에는 S.O.M의 뉴욕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1961년부터 1963년까지는 바우하우스의 교육을 받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에게서 사사를 받으면서 남프랑스의 라고드(La Gaude)의 IBM연구소, 미네소타 Collegeville의 성 요한의 Benedictine Abbey 같은 중요 작품에 참가하여 마르셀 브로이어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Fire Island의 해변주택을 단독으로 설계할 기회를 얻었다.

\* 정회원, 주성대학 디자인계열 실내디자인전공 전임강사

1)현대건축의 기수들, 현대미술관회 출판부, 서울, 1990, pp.35-37

이 작품은 마르셀 브로이어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싱글 스타일(Single Style)'이고, 후에 미스의 방법론을 자기 부모 주택에서 실험하고 미스(Mies)에 대한 관심을 라이트(Wright)적으로 해석하였다.

50년대 후반 뛰어난 학생들은 대개 르코르뷔지에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위대한 건축가의 이론적 포로가 되어 있었다. 코넬 대학 학장시절 그도 그들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론을 연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신중한 성격의 그는 항상 유혹과 정신혼란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백색건축(White Architecture)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마이어는 개인주택뿐 아니라 상업건축, 공장, 병원, 교육시설, 사무실, 미술관등 다양한 작품을 했는데, 그중 Smith House, Douglas House, Westbeth Artists Housing, Twin Parks Housing, Bronx Developmental Center, Hartford Seminary, High Museum of Art 등의 많은 작품에서 A.L.A 상을 수상했고, 로마와 밀라노에서도 상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가 주는 주택상도 여러번 받았고 83년에는 미국 아카데미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다음 해인 84년에는 건축부문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즈커상(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하는 등 많은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작품활동뿐 아니라 건축교육을 위해 쿠퍼 유니온(Cooper Union), 코넬(Cornell), 하버드(Harvard), 플랫(Pratt), 프린스턴(Princeton), 시라큐스(Syracuse), 예일(Yale)등 많은 대학에 초빙되어 강의를 맡았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60년대 Smith House를 비롯한 많은 백색건축의 저작이 그를 세상에 알려지게 했고, '70년대에는 Bronx Developmental Center를 비롯한 많은 공공건축 그리고 '80년대에는 프랑크푸르트의 Museum for the Decorative Art을 비롯한 외국의 작품, High Museum of Art와 같은 백색건축의 절정들이 그를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 신임을 얻게 되는데 기여한다. 그의 환원적인 미학을 가장 극적으로 세련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치밀성과 위엄을 갖게 된다.

그의 건축은 명료하면서도 복합적이고 세련되면서도 힘이 넘치고, 합리적이면서도 또한 시적인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은 시간을 초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이어는 30년이상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건축적 유행을 헤쳐나가면서 차분한 백색 주택들, 박물관, 공공건축물, 상업건축물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미국인들을 위해 그는 그리스 사원에서부터 바로크식 성당,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근대 기하학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통의 정수들을 흡수하였다. 유럽에서 그가 관여하고 완성한 여러 유명 작품들 중에서는 미국특유의 명쾌함과 활력이 나타난다.<sup>2)</sup>

## 2.2.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특징

리차드 마이어는 '백색'에 관한 남다른 철학이 있어 그의 작품집이나 연설문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가 주장하는 백색건축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백색은 모든 자연색에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색채, 백색 표면을 이용하면 솔리드 solid와 보이드 void, 빛과 그림자의 연출이 가능하다. 둘째, 백색은 전통적으로 완벽함과 순수함 그리고 명료함을 상징한다. 셋째, 백색은 가장 인상적인 색채이므로 나의 작업에서 가장 개성적인 특성을 내포한다. 넷째, 백색을 이용해 시각적인 형태의 힘을 강화시키고, 건축적인 개념을 명백히 한다. 다섯째, 백색은 추상적인 공간이나 스케일 그리고 자연과 컨텍스트와의 관련하여 공간을 정의하고 질서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존헤죽이 그의 작품집 후기에 언급하기를 "리차드는 아마도 백색의 특이한 사용을 통해 우리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규명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같은 단색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인식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도 흰색을 강조하고 있다.<sup>3)</sup>

1984년 프리즈커상 수상 연설문에서도 리차드 마이어는 백색은 가장 아름다운 색이며 항상 빛에 의해 전달되고 변화된다. 하늘과 구름과 태양, 그리고 달이 그러하듯 관계적으로 백색은 항상 순결과 명백을 상징하며 다른색은 그 배경에 의존해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흰색은 절대성을 보유하고 명백한 형태를 지니며, 날카로운 통찰력과 더욱 강해지는 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또한 빛과 공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빛과 휴면 스케일(human scale)과 건축문화와 연관된 질서와 정의의 공간 창조 그리고 볼륨(volume)과 스킨(skin), 빛의 행위, 규모의 변화, 운동과 정지를 이용한 작업이다.

그가 사용하는 자료(sources)들은 건축사와 관련된 것이나, 그가 인용하는 것과 암시하는 것은 결코 건축사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항상 주관적이고 순수한 건축학적 접근이다. 그러나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 하는 것은 불변성, 연속성, 우수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의 영상은 본질적으로 공간과 형태와 빛,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생각이며, 그의 목표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건축에도 감성과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작품에 대해 "조화로운 공간과 채광의 실험으로 명확성을 연구하는 그는 생기 있고,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건축을 디자인한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근본적인 그의 관심사는 결국 공간, 형태, 빛이다. 그의 목표는 환영보다는 현존이다. 왜냐하면 건축의 영혼과 정신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이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생명력과 인내를 함유한다.

그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무한한 문화로부터 추출되었고 인간질서를 끊임없이 정의한다. 이것이 그의 스타일의 기반을 이룬다.

최근 그의 주요작품을 중심으로 그 작품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2)현대건축의 기수들, 현대미술관회 출판부, 서울, 1990, p.195

3)현대건축의 기수들, 현대미술관회 출판부, 서울, 1990

### 3. 리차드 마이어의 작품연구

#### (1) 게티센터(The Gett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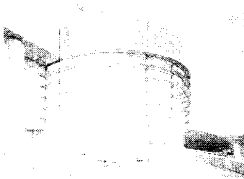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산타모니카 산맥에서 남쪽 브렌트우드의 주택가 쪽으로 뻗어가는 언덕배기에 독특한 대지위에 위치해 있으며 게티트 러스트를 구성하는 일곱 개의 요소들을 최초의 하나의 일관성 있는 통일체로 묶어내면서, 이 요소들이 갖고있는 저마다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다. 건물들은 면적 110에이커의 두 산마루를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 두축이 22.5°로 교차하는 지점은 로스앤젤레스 도로망을 빠져 나와 북쪽으로 구부러지는 샌디에고 고속도로의 굴곡과 일치한다. 사람들은 지하 주차장과 전차역을 통해 면적 110에이커의 단지로 들어 갈 수 있다.



<그림 1> 박물관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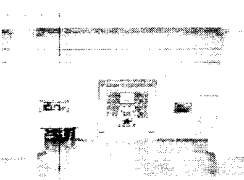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소



<그림 3> 도서관과 테라스



<그림 4> 로툰다 입구



<그림 5> 대형홀



<그림 6> 전시실

박물관 로비에 서 있으면 더 넓은 로비 저편에 하나의 연속적인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 갤러리의 구조를 볼 수 있다. 각 정원들은 작은 전시장 건물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이 전시장들은 박물관이 안겨주는 체험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잠시동안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트러스트 사무실들과 예술사 정보 프로그램의 서쪽에 위치한 좌석 450석짜리 강당은 건물 동쪽의 솟아오르는 움직임을 차단한다. 게티 보존협회, 게티 교육센터, 게티 장학금 프로그램들은 로콜라와 피콜라를 사용하고 외부 경계선 쪽으로 우뚝 솟음으로써 이 지역의 기후를 잘 이용하고 있다. 다소 분리된 느낌을 주는 서쪽 산마루에는 게티 예술사 및 인문학 연구소가 들어섬으로써 단지를 완성시킨다. 이 건물에는 백만권의 장서가 들어 있는 도서관과 열람실, 학습 열람실, 작은 전시공간, 그리고 직원과 학자들을 위한 사무실들이 있다. 자료 참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공간은 가운데의 원형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다소 방사상으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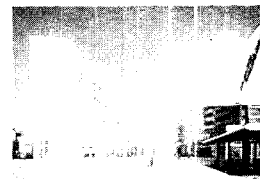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는 중심화 되지 않고 일련의 작은 도서관들로 구성되어 들어간다. 이 건물은 학자들이 공개서고를 탐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의 곡선은 이 센터가 갖는 자성적이고 분석적인 특성을 표현해 준다.

이 단지에서 조경은 건물들과 결합함으로써 이들을 이어주는 정원들과 더불어 하나의 지형이 되고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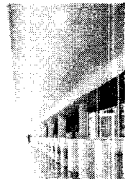
#### (2) 헤이그 시청과 도서관(City Hall and Library)

두 개의 구역인 칼베르마크트와 투르프마크트 사이에 위치한 헤이그 시청과 도서관의 복합단지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 구조물들이 모두 여러 가지 직각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구성되었다.

가로 8백 피트, 세로 250 피트 길이의 이 연속적인 건물에는 회의실, 시민 결혼식장, 중앙 공공도서관, 그리고 수많은 지방 정부 사무실들이 들어 서 있다. 이 거대시설의 모든 요소들은 시설의 북동쪽 끝에 혼자 서 있다시피한 사무용 임대 건물과 시설의 1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쇼핑공간과 결합되게 되어 있다. 각도 10.5°를 이루며 가로 방향으로 갈라지는 12층과 10층짜리 ㅏ 사무실들의 측면에는 넓은 실내 아트리움이 있어서 「시민강당」으로 알려진 도시의 새 「res publica」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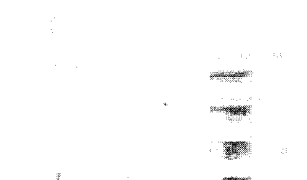
<그림 7> 도서관과 시청



<그림 8> 아트리움



<그림 9> 도서관



<그림 10> 아트리움

동심원에 가까운 형태로 계획된 도서관은 이 부지의 북서쪽 끝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도서관의 역동적인 형태는 대지를 감싸 안고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넓은 플라자에 강렬한 개성을 부여해 준다. 또 재건축 되어 도서관 밑에 펼쳐질 거구점 역시 플라자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이 플라자는 리셉션 및 안내데스크와 카페가 있는 도서관 내부까지 이어진다. 각 층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시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역시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대중적인 성격을 띤 공공 장소에서 좀더 사적이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아트리움의 유리지붕은 프리 빔으로 지탱된다. 아트리움 공중에 걸쳐져 있는 연결 다리와 엘리베이터의 중심부는 백색 칠을 한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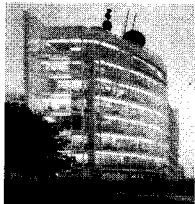
4)공간, SPACE 제33권 3호, 1998. 3, p.35

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백색 금속이 지니는 가벼움과 우아함은 마치 덩치 큰 건물을 잘게 세분하는 빛의 스크린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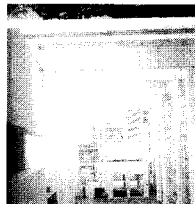
(3) 카날 플러스 본부(Canal+Headquarters)

센 강의 왼편 강둑에 인접하고 미라보 다리의 서쪽, 그리고 신축 될 시트로앵 공원의 동쪽에 위치하게 될 카날 플러스의 새로운 본사 및 제작 시설은 행정 사무실들이 들어서고 센 강을 바라보게 될 서쪽 윙(wing)과 시청각 제작시설이 들어설 동쪽 윙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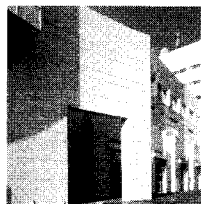
건물의 대략적인 구성은 전체적인 주위 환경과 상당히 여유 없는 대지의 제한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행정 기구가 들어설 윙을 가늘고 길게 만들자는 계획안은, L자형 대지의 북동쪽과 북서쪽 경계선이 이 블럭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터의 두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그림 11> 행정의 윙



<그림 12> 입구



<그림 13> 입구 캐노피

카날 플러스 본부의 개념은 섬세한 꼭대붙임으로 만든 얇은 막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서 만든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 쪽을 바라보는 커튼 벽을 만드는데 있어서, 맑고 반투명하면서도 흐릿한 백색 유리와, 벽 전체에 돌출해 있는 경량 알루미늄 브레이즈 솔레이유를 잘 결합시키는 일이었다. 공원 쪽을 바라보는 시청각 윙의 남쪽 면에도 이와 비슷한 커튼 벽을 사용하였다.

서쪽 윙에 있는 사무실들은 모두 강을 바라보며, 공원에 인접한 건물의 등 쪽은 금속판을 댄 뼈대가 떠받치고 있다. 동쪽 윙의 기본적인 형태는 세 개의 4층짜리 대형 텔레비전 스튜디오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윙은 부분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을 취함으로써 주위 경관과 어울리고 있다. 두 윙 사이에는 채광창을 단 3층짜리 유리 복도가 있어서 이 곳을 통해 각 층의 스튜디오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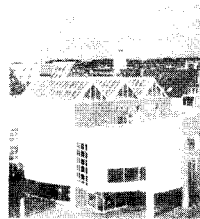
강을 바라보며 공기 역학적으로 돌출해 있는 사무실 윙의 벽과, 이와 대조되는 넓은 대형 스튜디오들이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혁신의 바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듯하다.

(4) 울름 슈타트 하우스(Stadthaus, Ulm)

윈 스테르 광장의 장식 요소나 보완물로 보이는 이 건물의 설계는 삼면이 여러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인 스캐어의 평면을 기초로 한 것이다.

여기서 서로 교차하는 일련의 축들과 전면의 선들은 일부는 성당으로부터 그리고 일부는 스캐어와 그 주변 환경이 가진 전반적인 기하학적 구조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스캐어의 남서쪽 모퉁이에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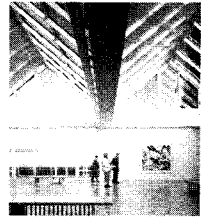
잡은 건물의 위치는 주공간과 히르흐 슈트라세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 지점에서 건물은 개방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스캐어로 이끄는 진입구 역할을 한다. 이렇듯 건물과 스캐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보완 작용은 일련의 아담한 실외공간과 스캐어를 향한 도출된 전망을 구성하는 중재적 요소를 통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그림 14> 외관 전경



<그림 15> 외관 야경



<그림 16> 전시실

이 건물은 울름시 관광객 사무실과 매표소가 있는 층의 로비를 통해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로비에서 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1층에 있는 강의실 및 회의실로 갈 수 있고 그 위층에 연속적으로 놓여 있는 두 개 층의 전시 공간으로 갈 수 있다. 지상 층의 지붕 덮인 로지아 식 연결 다리는 식당과 출입 로비를 연결시켜 준다. 1층에 있는 주 회의 공간은 스캐어와 시각적으로 매우 가깝게 배치되었으며, 비스듬하게나마 성당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지만 중앙의 나인 스캐어 큐브는 자연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곡선 부분과 별관 식당은 치장 벽토로 마감되었다.<sup>6)</sup>

이 건물의 전체적인 설계를 보완해 주는 것은 개조되는 윈스테르 광장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광장 바닥의 새로운 포장재로 성당에 사용된 그리드와 동일한 치수의 그리드가 사용되었다.

새로 포장된 이 광장은 아무런 구조물 없이 깨끗하게 처리된 반면 북서쪽 경계 부분에는 플라타너스를 심어 상업용 건물 전면에 적합한, 보다 친밀한 스케일을 연출해 준다. 비대칭으로 위치한 분수대는 성당의 첨탑과 건물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흥미 있다.

(5) 2000년 교회(Church of the year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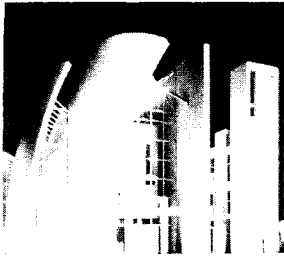
이 교회는 들어설 대지가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것은 울타리로 둘러친 땅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성스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세속적인 특성을 갖도록 고안되었다. 교회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식과 놀이, 성체 성사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드러낸다.<sup>7)</sup>

교회와 지역사회센터는 대지 가운데 건축이 가능한 남쪽과 북쪽 면에 위치해 있다. 두 건물 모두 포석이 깔린 동쪽의 플라자(사그라토)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통로는 대지 가운데에서도 사그라토 앞 잔디밭에 인접한 공공택지의 사실상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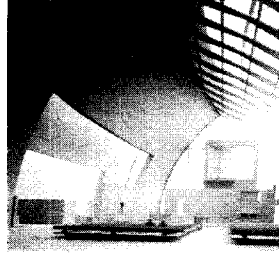
6)건축과 환경, KAI53, 일간 건축과 환경 통권153호, 1997, p.116

7)공간, SPACE 제33권 3호, pp.33-63, 1998. 3, p.56

5)공간, SPACE 제33권 3호, pp.33-63, 1998. 3, p.48



<그림 17> 플라자 입구



<그림 18> 교회 내부

주위를 둘러싼 벤치와 벽이 이루는 경계선 안쪽, 교회 대지의 서쪽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북쪽의 지역사회센터와 남쪽의 교회 건물 사이에 놓은 포도(鋪道)를 중심으로 하여 두 개의 뜰로 분리된다.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이 포도 외에도 보행용의 작은 길들이 두 개의 뜰에 놓여있다. 두 개의 뜰 중 북쪽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센터에 인접해 있고, 포석이 깔린 카페 테라스를 갖춘 오락용 정원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또 다른 뜰 하나는 명상을 위한 작은 장소가 딸린 명상용 공간으로 커다란 수영장이 갖춰져 있다.

교회와 경내의 균형 잡힌 구조에는 여러 개의 공동들과 네 개의 원이 접해 있다. 같은 반지름을 지닌 세 개의 원은 중추적인 벽과 함께 본당 회중석을 이루는 세 개의 뼈대가 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은 삼위 일체를 상징하며, 교회가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의 생명수로부터 이 지역의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주랑 현관과 도로 포장, 성찬식을 위한 가구와 벽 외장재는 이중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교구민들이 사는 집의 석조 건축을 암시하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교회의 본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뼈대의 건축용 콘크리트는 돌의 대용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 교회의 몸체는 자연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천장의 빛과 흐릿한 하늘빛이 서로 연결된 뼈대들 사이를 비추면서, 궤도에 따른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 계속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의 형태에 끊임없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계절과 날씨, 하루의 시간이 바뀔 때 따라, 빛은 교회 뼈대의 안쪽 표면에서 변화무쌍하게 뒤섞이고, 그러므로써 교회와 예배당, 침례 성수반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한다. 이 빛은 수직 유리벽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더욱 완전해지는데, 이 유리벽을 이루는 반투명 유리는 내부를 조명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다. 교회의 전체적인 경계선을 따라, 가느다란 끈 모양의 맑은 유리가 바닥에 깔린 포석을 내려다보고 있다.

#### 4. 현대건축과 리처드 마이어

그의 백색의 건축 경향이 게티 센터를 계획하면서 큰 전환점을 갖게되는데, 작품을 통한 주제는 일관성 있는 반복을 거듭하게 되면서 '모더니즘의 시학, 테크놀로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은 '하나의 전통이며, 기나긴 연속체로서 전통과 단절하든지 아니면 이를 강화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는 것이다. 자신의 작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질서를 찾아내고 다시 정의하고, 어떤 용도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리처드 마이어를 통한 건축은 빛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의 여러 형태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빛에 의해서만 전달되어 질 수 있는 백색의 순결함과 명백함, 또한 다른색에 비해 주변의 색상에 의해 자신의 색상이 다르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절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력한 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백색의 강한 집착과 명백한 자기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은 빛과 공간, 빛에 의한 공간의 다양한 연출과 빛과 휴먼 스케일, 건축문화와 인간의 질서와 정의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고자한다. 또한 자기 개성적 표현 방식과 절제되면서 현대 문명이 주는 재질로 인한 표현 요소와 선과 면의 분할 등이 전체적인 구성요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외에서의 이미지가 실내에 같은 표현요소로 작용하여 적용하고 이 작품들이 현대의 건축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방향제시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대 건축에 있어서 공간이 가치 있는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디자이너의 작업은 그의 철학적이고 독창적 개성과 사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의 체계, 오래도록 기억되는 미래지향적 컨셉 등이 모두 결합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미적 표현의 방법이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 기준에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기준이 작품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건축을 통한 공간 구성 방법이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체험은 작가나 나라별 아이덴티티, 기후, 대륙과 해양 등 지역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미적 표현 방법이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조형물이 되며, 거기에 따른 기능이 부합되어 지도록 하는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수반되어 진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새천년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미적 표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차별화 된 독창적 사고를 위한 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5. 결론

위에서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세계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의 다양하고 철저한 건축적 사고에 의해서 새로운 모더니즘이 재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현대의 경향인 미니멀리즘처럼 절제되면서 최소한의 표현요소를 속에 많은 함축된 내용을 내포하여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간파할 수 있는 고도의 트레이닝 된 전문가도 각자의 해석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므로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조형물이 되며, 거기에 따른 기능이 부합되어 지도록 하는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수반되어 지는 현대 건축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새천년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건축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차별화

된 독창적 사고에 의한 각자의 나름대로의 건축적 사고의 아이덴티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Modern Exploration, Architecture, 1994
2. 현대건축의 기술들, 현대미술관회 출판부, P35-37, 1990
3. 박길룡, 박물관 건축공간의 구획체계에 관한 연구, 造形論叢, 국민대 환경디자인 연구소, 1997
4.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실내건축가, 현대 건축가연구, 1996
5. 건축디자인, 1998
6. 김민제, 현대 뮤지엄 건축공간의 미적 체험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1998
7. 공간, SPACE 제33권 3호, 1998. 3
8. 건축과 환경, KAI53, 월간 건축과 환경 통권153호, 1997
9. 김주연, 20세기 건축의 유기적 표현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회지, 1999. 3
10. Michael Webb, 낭만적 모더니스트, 건축과 환경, 1997. 5
11. 서상우, 뉴 뮤지엄의 공간 구성과 상관관계 연구, 한국박물관 학회논문집 제1호, 1998. 1
12. Klotz, Heinrich, 현대 건축론, 양동양 옮김, 기문당, 1994

<접수 : 1999. 11. 11>